

“선택과목 유불리 의식 말고 공통과목에 역점뒤야”

수능 D-100

“전략적 접근해 마무리를”

문이과 통합...실전 마무리 학습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9일이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 체제로, 모든 수험생이 국어와 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입시 경쟁과 희망 대학·학과에 맞게 실전 마무리 학습에 나서고,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대 정시 40%...“전략적으로 공부” 최근 몇 년간 대입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은 커지고 있으며, 수시전형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는 대학이 많다. 2023학년도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40.5%에 달한다. 또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15년(40.9%) 이후 8년 만의 최고인 39%인데,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옮겨지는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 모집 비율은 45%에 육박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8일 “남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수능대비가 필요하다”며 “재수생 증가로 고3 학생들은 준비라·킬러문항, 공통과목에서 평소보다 강도 높은 학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이 불과 3개월여 남은 만큼 입시 전문가들은 출제 경향, 자신이 지원할 대학 입학전형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실전을 위한 마무리 학습에 나서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금부터는 실전 문제 풀이에 집중하되 오답에 대한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유불리보다 자기만의 공부”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외에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사회와 과학 구분 없

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돼 왔다. 임성호 대표는 “통합수능 2년차에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택과목별 유불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만의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만기 소장은 “선택과목 유불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고 공통과목에 역점을 두고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도 “국어와 수학은 배점이 높은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다”며 “유불리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한국문화체험수업’ 라이브 송출

KF 사업 지원...중국 산동노동직업대 학생들 대상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KF 사업 지원의 하나로 최근 중국 산동노동직업기술대학 국제교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수업 라이브 송출을 진행했다. (사진)

호남대와 산동노동직업대학은 지난해부터 KF사업을 개시,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송출한 바 있으며 이번 한국문화체험 수업은 외식조리학과 김영균 교수의 ‘바리스타’, 최상호 교수의 ‘에그타르트와 레몬마들렌’, 뷰티미용학과 유보 교수의 ‘천연비누와 향수 만들기’, 시각디자인학과 왕루 교수의 ‘캘리그래피와 에코백그리기’ 및 미술강사의 ‘힐링플라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텐센트 온라인 회의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문화체험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지 못해 아쉽지만 신선하고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실시간 강의 후 담당 교수님께 직접 질의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한국어 학습에 매진해 하루빨리 호남대로 유학가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운영 제반을 담당한 국제교류처(처장 손완이)는 “호남대와 산동노동직업기술대학은 2018년 교류 협약 체결 이래 단기간 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문대-학부연결과정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호남대학교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양교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도교육청, ‘정주형 장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청신호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사업 선정...사업비 62억원 확보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주형 장기 농산어촌유학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교육청은 해남군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LH 연계)과 교육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생활거점 조성사업’ 예산 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생활SOC+일자리’가 결합된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국에서 11건이 뽑혔다.

해남군은 이 중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응모해 경남 거창군, 충북 괴산군, 경남 남해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로써 해남군은 사업비 62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5년까지 복원면 일원에 LH 공공임대주택 15호와 다목적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해남군의 이번 지역개발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직선4기 출범과 함께 세운 정주형 장기유학 확대를 통한 농산어촌유학사업 활성화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협업 사업 참여 의사 수요 조사 시 전남농산어촌유학 정주형 장기유학 활성화를 위한 주거플랫폼 확충 분야 참여를 희망한 바 있다.

현재 도 교육청은 해남군 복원면·두륜중학교를 대상으로 유학 온 지역에 최소 5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유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19가구 총 35명이다.

지난 2월에는 농산어촌유학 등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과 현산·북일·계곡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향후 해남군 사례를 모델링해 작은 학교를 지키고,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에 학생인구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전남농산어촌유학의 정주형 장기유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학·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나주이화학교 학생들과 대학 탐방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초등특수교육과는 최근 혁신사업 협력 현장연구 프로그램으로 나주이화학교(교장 이현희)에 재학중인 전공과 학생 5명과 함께 대학 탐방 및 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화학교는 2013년 개교한 지적, 정서장애 공립 특수교육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학과장 이재호 교수와 나주이화학교 전공과 김수정 교사가 공동 연구 중인 ‘마음이해와 관계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특

수학교 전공과 학생을 중심으로’라는 공동 연구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 성인들과 초등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실내 양궁장에서 광주여대 양궁부가 지도하는 양궁 체험시간도 마련됐다.

나주이화학교 김수정 교사는 “장애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친구보다는 교사, 활동보조원,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복지

관련 인력으로 채워진다”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존재인 ‘아는 언니’, ‘아는 누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 책임연구자인 이재호 교수는 “장애·유·무가 사회통합과 적응에 걸림돌이 될 수 없으며 성인 장애인들의 여가와 복지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연구는 모든 참여자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체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AI기반 외국어 프로그램 제공

국제교류원, 80여명 학생 수준 평가 맞춤형 학습자료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토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외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최근 ㈜위드 ‘AI 산타’ 플랫폼을 이용해 재학생들의 어학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토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HTHT(High Touch High Tech)를 도입해 80여 명의 학생들이 영어 실력 쌓기에 나선다.

‘HTHT’는 AI 시스템을 통해 학생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받아 교수자의 강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과 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을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동강대는 지난 3월 아시아교육협회 주최 ‘2022년도 HTHT대학 컨소시엄 챔피언 대학’에

선정됐다. 2020년부터 아시아교육협회가 주관한 ‘HTHT 컨소시엄’ 전문대 분과에 참여해 ‘AI 기반 에듀테크 모델’을 비교과 수업으로 운영, 전국 전문대학 뿐 아니라 4년제 대학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모범 모델로 꼽히기도 했다.

동강대는 지난 7월 아시아교육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달 2학기 동안 영어를 비롯해 수학과목도 에듀테크 기업인 비트루브(주)의 ‘mata수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강대 허숙 국제교류원장은 “방학기간 AI 기반 토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외국어 수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맞춤형 학습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